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일본 패션디자이너 작품에 나타난
아방가르드의 표현요소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이 걸

일본 패션디자이너 작품에 나타난
아방가르드의 표현요소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이 걸


인 준 서

이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1월

심사위원 장 민 정 

심사위원 김 미 영 

심사위원 김 경 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현대패션이 기존규범에 대한 해체와 다원주의적 사고 등에 의해 점차 다층적 양상을 보임에 따라, 그동안 사회적 주변성을 내세워온 아방가르드는 테마뿐만이 아니라 패션과 문화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대패션에서 다수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아방가르드 패션이 표현되고 있으며, 아방가르드패션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아방가르드패션 디자이너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아방가르드 패션에 나타난 미래 패션의 방향을 가늠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 창의적인 현대 패션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선행연구 및 단행본 등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의 발생배경과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실루엣, 색채, 소재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일본의 패션 디자이너 하나에 모리, 이세이 미야케, 레이 카와쿠보, 요지야마모토, 다카다 겐조, 준야 와타나베, 고시노 미치코, 오바나 다이스케, 치토세 아베, 준 타카하시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였다.

일본의 대표적인 아방가르드 패션 디자이너 다카다 겐조, 준야 와타나베, 치토세 아베, 준 타카하시의 컬렉션 작품을 미적특성 미래성, 해체성, 장식성, 초현실성으로 분류하여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카다 겐조는 간결한 디자인과 헤어 장식을 결합하여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이질적인 소재와 컬러의 다양함, 오브제의 사용으로 인해 SF영화 속 주인공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통해 창의적인 디자

인적 특성을 갖는다. 또한 색채의 대비와 확대된 실루엣을 통해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둘째, 준야 와타나베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통해 조형적인 형태로 디자인하여 표현하였고, 헤어장식과 몸의 형태를 과장시키거나 왜곡시켜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어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는 특성을 갖는다.

셋째, 치토세 아베는 기존의 것을 재사용, 혼합, 인용하거나 이질적인 소재의 혼합, 과대한 실루엣이나 형태, 구조를 변형하여 나타냈다. 기괴적이고 난해하지만 새로운 감각으로 현대적 감성에 맞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는 특성을 갖는다.

넷째, 준 타카하시는 다양한 소재의 결합과 디자인의 해체와 결합을 통해 해체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실루엣을 과장시키거나 왜곡시키며 이질적인 소재의 믹스매치를 통해 디자인하였고, 기괴적이고 독특한 헤어 장식과 모티브를 통해서 창의적인 디자인적 특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일본 디자이너들의 아방가르드 패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 디자이너들의 패션에는 자국의 전통정서와 문화, 미의식, 예술 흐름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 디자이너들의 아방가르드 패션 표현요소를 통해 일본의 문화와 정서를 깊이 이해하고, 더 나아가 아방가르드 패션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대 패션분야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다양한 표현 도구로써 디자인 개발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아방가르드에 대한 고찰	4
2. 아방가르드 패션에 대한 고찰	12
3.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에 대한 고찰	20
III.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디자이너에 나타난 표현요소	41
1. 다카다 겐조	41
2. 준야 와타나베	45
3. 치토세 아베	49
4. 준 타카하시	53
IV. 결론	58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의 디자인 요소	29
<표 2>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 디자이너에 따른 표현요소	57

그림 목 차

<그림 1> Vivienne Westwood 2016 F/W Collection	13
<그림 2> Vivienne Westwood 2015 S/S Collection	13
<그림 3> Alexander McQueen 2016 F/W Collection	14
<그림 4> Alexander McQueen 2012 F/W Collection	14
<그림 5> Jean Paul Gaultier 2014 S/S Collection	15
<그림 6> Jean Paul Gaultier 2015 S/S Collection	15
<그림 7> Paco Rabanne 2012 S/S Collection	16
<그림 8> Paco Rabanne 2015 F/W Collection	16
<그림 9> Marc Jacobs 2010 S/S Collection	18
<그림 10> Marc Jacobs 2016 F/W Collection	18
<그림 11> Ann Demeulemeester 2010 F/W Collection	19
<그림 12> Ann Demeulemeester 2016 S/S Collection	19
<그림 13> Undercover 2014 F/W Collection I	24
<그림 14> Comme des Garcons 2012 S/S Collection	24
<그림 15> Issey Miyake 2011 F/W Collection	24
<그림 16> Comme des Garcons 2016 F/W Collection	24
<그림 17> Yohji Yamamoto 2016 F/W Collection	26
<그림 18> Issey Miyake 2014 F/W Collection I	26
<그림 19> Kenzo 2016 F/W Collection I	26
<그림 20> Comme des Garcons 2013 F/W Collection I	26
<그림 21> Undercover 2016 F/W Collection I	28

<그림 22> Undercover 2014 F/W Collection II	28
<그림 23> Issey Miyake 2016 F/W Collection	28
<그림 24> Issey Miyake 2015 S/S Collection	28
<그림 25> Hanae Mori 2002 F/W Collection	31
<그림 26> Hanae Mori 2015 S/S Collection	31
<그림 27> Issey Miyake 2014 F/W Collection II	32
<그림 28> Issey Miyake 2016 F/W Collection	32
<그림 29> Comme des Garcons 2013 F/W Collection II	33
<그림 30> Comme des Garcons 2016 F/W Collection	33
<그림 31> Yohji Yamamoto 2014 S/S Collection	34
<그림 32> Yohji Yamamoto 2016 S/S Collection	34
<그림 33> Kenzo 2015 F/W Collection I	35
<그림 34> Kenzo 2014 F/W Collection I	35
<그림 35> Junya Watanabe 2012 S/S Collection	36
<그림 36> Junya Watanabe 2016 S/S Collection	36
<그림 37> Michiko Koshino 2001 S/S Collection	37
<그림 38> Michiko Koshino 2005 F/W Collection	37
<그림 39> N Hoolywood 2011 S/S Collection	38
<그림 40> N Hoolywood 2014 S/S Collection	38
<그림 41> Sacai 2016 S/S Dress	39
<그림 42> Sacai 2015 F/W Collection	39
<그림 43> Undercove 2014 F/W Collection III	40
<그림 44> Undercover 2016 S/S Collection	40
<그림 45> Kenzo 2015 S/S Collection	43

<그림 46> Kenzo 2014 F/W Collection II	43
<그림 47> Kenzo Men 2016 S/S Collection	43
<그림 48> Kenzo 2016 F/W Collection II	43
<그림 49> Kenzo 2013 F/W Collection	44
<그림 50> Kenzo Men 2014 S/S Collection	44
<그림 51> Kenzo 2015 F/W Collection II	44
<그림 52> Kenzo 2010 F/W Collection	44
<그림 53> Junya Watanabe 2013 S/S Collection	47
<그림 54> Junya Watanabe 2015 S/S Collection	47
<그림 55> Junya Watanabe 2016 F/W Collection	47
<그림 56> Junya Watanabe 2012 F/W Collection	47
<그림 57> Junya Watanabe 2014 F/W Collection	48
<그림 58> Junya Watanabe 2014 S/S Collection	48
<그림 59> Junya Watanabe 2011 S/S Collection	48
<그림 60> Junya Watanabe 2012 S/S Collection	48
<그림 61> Sacai 2016 F/W Collection I	51
<그림 62> Sacai 2014 F/W Collection	51
<그림 63> Sacai 2016 F/W Collection II	51
<그림 64> Sacai 2013 F/W Collection I	51
<그림 65> Sacai 2016 F/W Collection III	52
<그림 66> Sacai 2012 F/W Collection	52
<그림 67> Sacai 2013 F/W Collection II	52
<그림 68> Sacai 2015 S/S Collection	52
<그림 69> Undercover 2015 F/W Collection	55

<그림 70> Undercover 2014 S/S Collection	55
<그림 71> Undercover 2013 F/W Collection I	55
<그림 72> Undercover 2016 F/W Collection II	55
<그림 73> Undercover 2015 S/S Collection	56
<그림 74> Undercover 2013 F/W Collection II	56
<그림 75> Undercover 2014 F/W Collection IV	56
<그림 76> Undercover 2016 F/W Collection III	56

I. 서론

패션산업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과학적 지식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하는 지식기반 산업으로 전환되면서¹⁾ 패션에서 ‘창의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패션디자이너의 창의적 발상과 예술적 가치 및 철학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아방가르드 패션은 현대 패션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

아방가르드는 고전적 미의 가치파괴와 사회규범으로부터 이탈하여 비예술적 표현성을 수용함으로써 스스로를 혁신하고 재창조하는 예술 분야로 미술 외적인 양식들은 물론 도발, 폐쇄성, 사회적 생존전략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현대사회의 특성을 잘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²⁾.

또한 아방가르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또는 아방가르드와 포스트 아방가르드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다양성과 다원적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사회에서³⁾ 패션분야 뿐만 아니라 예술과 디자인 영역까지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패션에서의 아방가르드는 소비자의 개성표현을 위한 전위적인 방법으로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자주 등장하며, 비주류문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최근의 문화적 현상⁴⁾에 의해 아방가르드 패션이 대중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 일본은 아방가르드 패션이 나타나고 있는 동양의 대표적 나라라 할 수 있으며, 일본의 전통 복식을 기본으로 하여 현대의 몸을 새로

1) 이민선(2013). 패션디자이너의 창의성 발현요인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2.

2) 정재연(2006). 패션디자이너의 아방가르드 스타일에 조형적 특성. 한국기초조형학회지, 7(1), pp. 409-419.

3) 이미연(2009). 현대 아방가르드의 페러다임에 따른 NOW 아방가르드 패션 고찰: 2005년 이후의 여성복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7(1), pp. 40-54.

4) 조규화·이희승(2004). 패션미학. 서울: 수학사, p. 43.

운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하는 디자이너로 다카다 겐조(Takada Kenzo),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 치토세 아베(Chitose Abe), 준 타카하시(Takahashi Jun)등의 일본 디자이너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서구패션의 획일적인 방향에서 탈피한 사고와 영감의 공간 확장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개성표현과 다양성이 요구되고 현대패션에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서구 패션의 개념을 벗어나게 하면서 새로운 패션의 개념을 영입시켜 패션계에 큰 변화를 이끈 일본 디자이너들의 아방가르드 패션의 특성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아방가르드 패션을 디자이너 별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련서적, 전문 잡지, 논문 그리고 인터넷자료를 기본으로 한 문헌연구 중심의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아방가르드의 이론적인 고찰과 일본 디자이너의 패션을 조사하여 현대 패션에 영향을 미친 일본식 아방가르드의 조형적 특성을 연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일본 디자이너 중 세계 패션시장에서 알려진 패션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조형미의 기본적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스타일의 아방가르드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패션디자인의 핵심이 되는 스타일, 색채, 그리고 소재 측면에 조사 분석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방가르드의 일반적 고찰로서 아방가르드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작품 사례를 바탕으로 패션에 나타난 아방가르드에 대해 고찰한다.

셋째, 일본 아방가르드의 발생 배경을 알아보고, 디자인 요소에 따른

아방가르드 사례와 일본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별 사례를 통하여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에 대해 고찰한다.

넷째, 아방가르드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대표적 일본 아방가르드 디자이너 4명을 선정하고, 디자이너 작품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의 특성에 대해 고찰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방가르드에 대한 고찰

1) 아방가르드의 개념

아방가르드란(Avant-garde) 용어는 ‘전위(vanguard)’, 즉 소속 부대를 엄호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초에서 활동하는 분견대나 별동대를 의미하는 프랑스 군사 용어였다⁵⁾.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의 가치체계와 전통일반에 대한 부정의 정신으로 새로운 미적 가치의 추구, 새로운 조형 질서의 모색, 그리고 새로운 표현방식의 실험을 주장하는 혁신적이고 극단적이고 실험적인 현대예술을 의미한다.⁶⁾

미술용어 사전에서는 아방가르드는 ‘전위’, ‘선두’, ‘선구’등의 뜻으로 인습적인 권위와 전통에 반항하는 혁명적인 예술 운동을 말하며, 특정 주의나 형식을 가리키는 용어라기보다는 신세대의 급진적인 예술정신 전반에 걸쳐서 사용하는 말이라 정의하고 있다.⁷⁾

위르겐 하버마스⁸⁾는 그의 연구에서 “아방가르드는 미지의 영역을 침입하고,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위협에 직면해 자신을 노출하며, 또 아직까지 점령되지 않은 미래를 정복하는 것으로 자신을 이해한다. 그리고 아방가르드는 아무도 탐험하지 않는 곳에서 방향을 찾아야만 한다.”⁹⁾ 고 설명하고 있다.

5) 노정심(1994).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

6) 상계서, p. 23.

7) 월간미술(2007).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월간미술, p. 34.

8)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1929년 6월 18일 -)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비평 이론과 북미 실용주의 사회학자이다. 소통 행위의 이론에서 공공 영역의 개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회 이론의 기초와 인식론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진보된 자본주의 사회와 민주주의, 비판적 사회 진화적 맥락, 현대 정치학(특히 독일의)에 영향을 미쳤다. 하버마스의 이론적 체계는 이성, 해방, 현대의 기구와 인간능력의 이성주의 적이고 비판적인 소통 잠재력의 가능성을 여는 데 있었다.

9) 정정호·강내희(1989). 포스트모더니즘론. 서울: 문화과학, p. 108.

또한 레나토 포지올리(Renato Poggioli)¹⁰⁾는 아방가르드란 인습적인 권위와 전통에 반항, 혁명적인 예술 정신의 가치를 내걸고 행동 하는 예술 운동을 말한다. 특정주의나 형식을 가리키는 용어라기보다는 신세대의 급진적인 예술정신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는 말이지만, 특히 미술에 있어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입체파, 표현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등의 혁신적인 예술을 통틀어 일컫기도 하였다. 또한 아방가르드의 특성을 적극적 행동주의(Activism), 대립의식(Antagonism), 허무주의(Nihilism), 불안(Agonism), 미래주의(Futurism)등을 열거하였다¹¹⁾.

피터 뷔르거(Peter Burger)¹²⁾는 심미성을 강조한 모더니즘이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했다면 아방가르드는 ‘반 예술을 위한 반 예술’을 주장했다. 또한 뷔르거에 있어 아방가르드의 목표는 예술과 삶을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 자율적인 예술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다¹³⁾. 따라서 피터뷔르거의 아방가르드는 반 심미주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유희주의를 거부할 뿐 만 아니라 예술의 자율성을 지양하고 현실세계 속으로 녹아드는 삶과 예술의 일치를 창출하였다¹⁴⁾.

이처럼 많은 아방가르드 이론가들은 아방가르드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제시하지만 그 공통점은 아방가르드의 정신이 전통이나 과거의 습관을 탈피하여 새로움이나 미래를 추구한다는 데에 일치하였다.

10) 레나토 포지올리는 1907년 피렌체에서 태어났다. 1946년부터 하버드 대학에 비교문학과 슬라브학의 정교수로 취임했다. 57년에는 소르본 대학에서 러시아 문학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1957년 미국 문학가 아카데미에 종신회원으로 선출되었다. 포지올리는 62년 「아방가르드 예술론」을 출판하였다.

11) 채혜숙·유영선(2009). 아방가르드 예술에 의한 영국패션 표현 연구: 레나토 포지올리의 예술론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1(1), pp. 399-410.

12) 피터 뷔르거는 독일 아방가르드 연구학자. 그는 초현실주의적 반항의 실패를 암시하기 위해 ‘포스트-전위파’ 예술에 대해 거론할 것을 주장했다. 뷔르거는 「전위예술의 새로운 이해」를 출판했다.

13) 번가영(2014). 현대복식에서 로맨틱 아방가르드 디자인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

14) 채혜숙(2010). 프랑스, 영국, 일본의 아방가르드 패션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8-10.

2) 아방가르드의 특성

아방가르드 예술은 전통의 부정을 통해서 새로운 미적 가치와 표현 방식을 추구하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현대 예술의 한 형태이며, 새로운 예술, 젊은 예술, 추상 미술, 모던스타일 등 장르와 사용자에 따라 그 쓰임이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레니토 포기올리(Renato Poggioli)는 행동주의, 적대주의, 미래주의, 기술주의로 아방가르드의 특성을 분류하였고¹⁵⁾, 번가영(2014)¹⁶⁾은 아방가르드의 특성을 해체성, 혼합성, 역사성, 장식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김원갑¹⁷⁾은 아방가르드의 심리적, 미학적 특성을 역동성, 적대성, 자학성, 실험성, 순수성, 비인간성, 해학성으로 분류하였고, 윤혜성(2013)¹⁸⁾은 적극적 행동주의, 적대주의, 허무주의, 미래주의, 해체주의, 미니멀리즘, 절충주의로 분류하였으며, 엄소희, 김문숙은¹⁹⁾ 미래적 역동주의, 소외적 적대주의, 초현실적 실험주의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방가르드 특성과 관련하여 미래성, 해체성, 역사성, 초현실성, 해학성, 장식성, 적대성으로 분류하여 패션에 나타난 아방가르드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미래성

아방가르드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것이며, 새로운 세계의 정신적인 골격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즉 미래의 사회, 미래의 예술, 미래의 인간을 꿈꾸는 것이다²⁰⁾.

15) 엄소희·김문숙a(2000). 현대복식에 표현된 아방가르드의 유형별 특성 연구. 복식문화, 8(2), pp. 315-333.

16) 번가영(2014). 전계서, p. 24.

17) 김원갑(1991). 현대건축디자인에 미친 아방가르드 이론과 과학패러다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8) 윤혜성(2013). 아방가르드 표현요소를 적용한 패션창작센터 실내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엄소희·김문숙a(2000). 전계서, pp. 315-333.

미래는 전통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래주의 아방가르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극하려 했다는 점에서 반문화, 반전통적이라 할 수 있다. 공간은 과거 속에서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반문화, 반 전통 그리고 ‘미래의 실현’ 또한 영원한 부정과 단절을 통한 새로움의 실현이며 이것은 이후 등장하는 예술 경향에 이념적 근간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²¹⁾.

아방가르드 운동으로 인한 개혁이 연극과, 발레, 오페라 공연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이탈리아의 예술계에서는 진정한 혁신은 미래주의의 탐색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에 가장 충실하며 세련된 감각이 돋보이는 작가로 발라와 데페로를 들 수 있다. 자모코 발라는 미래주의 미술가로 영화, 디자인, 연극 공연에 이르기까지 예술작품을 창조하였다²²⁾.

(2) 해체성

해체성은 아름다운 여성의 인체 미를 통한 조형적 아름다움과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가리는 방식을 통해 정숙성과 비정숙성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²³⁾ 아방가르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해체란 포스트구조주의의 하부개념으로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후기 구조주의사상 중 하나다²⁴⁾. 즉 해체주의란 ‘현전(現前, Presence)의 형이상학’이라고 불리는 철학적 사유전통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이항대립이나 이분법을 없애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²⁵⁾.

20) 엄소희(1993). PunkFashion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

21) 이경은(2007). 메이크업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에 관한 연구: 2001년~2005년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64.

22) 페데리코 폴레티(2010).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세계 아방가르드. 서울: 마로니에북스, p. 85.

23) 이용섭 외 2인(2015). 로맨틱 아방가르드 특성을 응용한 신발 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5(4), p. 124.

24) 윤호병(1992). 후기구조주의. 경기: 고려원, pp. 17-18.

25) 금윤진(2005).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포스트모던적 아방가르드 성향에 관한 연구: 해체주의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8-23.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고의적으로 과격하고 불온하게 만들었으며, 도발적이고 충격적인 행위로 기존의 전통을 조롱하며 대중들을 놀라게 하였다. 또한 기존사회의 권위의식과 고정불변의 원칙들로 요지부동의 사회에 대한 저항과 거부로 이를 해체하기 위한 방편 이었다²⁶⁾.

따라서 해체는 조립, 분해, 파괴의 행위와 연결성이 높고, 그것은 부정적인 힘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²⁷⁾. 그리고 해체주의는 절충주의, 탈 형식주의, 콜라주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건축에서는 추상적 라인, 이질적인 소재의 재배열 등이 있으며, 패션에서는 불규칙성, 비대칭, 단순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실험적인 디자인을 시도하였다²⁸⁾.

패션에 있어 해체는 분석적인 작업으로 의복의 구성을 손상하고 파괴함으로써 등장하였으며²⁹⁾, 불확정적 의복은 의복 내부의 각 요소들 사이에서 상호간의 현존이나 부재의 대립을 초월하여 인체에 착용한 후에야 형태를 논하는 것이 가능하였다³⁰⁾.

(3) 역사성

찰스 러셀(Charles Russell)은 아방가르드들의 특성을 시간적 역동성, 사회적 반목, 예술과 사회의 역사적 가능성, 그리고 심리적 행동주의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논의한다. 예술과 사회의 역사적 가능성이란“ 아방가르드 작가가 흔히 당대 사회의 전보적 이거나 혁명적인 다른 세력들과 결

26) 최애주(2010). 해체의 전위로서 아방가르드(Avant-Garde) 미술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20.

27) 김혜경(2007). 패션트렌드와 이미지. 서울: 교문사, p. 132.

28) 팽문영(2009). 영국과 일본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5.

29) Richard Martin & Harold Koda(1993). *Infra Apparel*. NewYork: The MetropolitanMuseum of Art, p. 94.

30) 이지원(1999). 해체주의적 표현기법으로 형상화시킨 니트웨어 디자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6.

합하여 어떤 이상화된 미래를 예견하는 입장”을 말한다.³¹⁾

역사적 아방가르드 패션은 모더니즘적 측면과 미학적 예술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모더니즘 패션 주체도 그 당시 새로운 실험의 성격을 띤 아방가르드였기 때문이다.³²⁾ 역사성은 유행하던 과거 패션의 스타일, 아이템이나 디테일 등이 현대의 소재표현이나 기술과 재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아방가르드 패션에 나타난 역사성은 과거 시대의 패션 아이템들을 현 시대적 양식과 함께 표현하면서 아방가르드한 실험성을 내포시키는 재창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³³⁾

역사적 아방가르드 패션은 예술의 직접적 접목에 따른 추상적인 형의 복식과 제1, 2차 세계대전이라는 혁명적 사건 그리고 복식 자체의 전통에 대한 반발과 새로움의 추구라는 미적 모더니티로 정식적인 요소가 배제된 순수 복식, 그리고 고전적인 인체의 선에서 벗어난 새로운 라인의 발견으로 탄생된 순수조형의 아방가르드 복식을 의미한다.³⁴⁾

(4) 초현실성

초현실성이란 전적으로 심리적인 자동적 작용으로 이성이 작용하는 모든 제재로부터 벗어나 아무런 미적·도덕적인 규율의 준수에 대한 우려 없이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사고를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³⁵⁾

이러한 초현실성은 다다이즘의 허무주의로부터 예술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프랑스의 시인 앙드레 브르통은 자동기술법이 곧 초현실주의라고 언급하며, 자동기술법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성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순수한 상태로 현실과 무의식의 경계를 허물어버림

31) 김육동(1994).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 서울: 민음사, p. 147.

32) 김민자(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복식, 37(1), p. 105.

33) 이용섭 외 2인(2015). 전계서, p. 25.

34) 이미연(2009). 전계서, p. 44.

35) 페데리코 폴레티(2010). 전계서, p. 118

으로써 이성을 긴장상태로부터 해체시킨다 하였다.³⁶⁾

즉, 내면세계의 표현을 통하여 즐거움이나 조롱을 표현하고, 환상적 소비주의, 자동적인 변형과 소재의 실험, 성, 부와 빈, 창작과 모방의 양면으로 대립적 양식의 혼합현상으로 실험적인 방식을 통한 영역간의 경계 해체를 가져온다. 이에 초현실주의는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실험적인 방식을 통하여 영역간의 혼합을 시도하고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³⁷⁾

(5) 해학성

아방가르드는 진지함과 아이러니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아방가르드의 아이러니는 조롱과 기괴한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해학성은 희화와 풍자라는 요소를 파생시키며, 유치하고 원초적 웃음을 동반하는 오락적 유희와 달리 풍자는 왜곡이라는 수단으로, 희화는 오락적 유희라는 수단으로 나타난다.³⁸⁾

또한 아방가르드는 기성세대의 고정된 시각으로 볼 때 놀라운 충격을 주거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경향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것은 희화와 왜곡이다. 희화와 왜곡은 권위주의에 대한 풍자의 형태로 현실을 넘어선 무엇인가를 정신적으로 상징하고자 하는 의욕에 배제 된다.³⁹⁾

(6) 장식성

장식성은 창조적이면서도 실험적인 예술적 감각의 디테일들이 과도한 장식 등으로 표현되어 유희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방가르드 패션의 장식성은 다양한 소재, 문양, 화려한 색채, 섬세한 디테일을 활용하여 화려하

36) 진중권(2011).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모더니즘편. 휴머니스트, P. 213.

37) 엄소희·김문숙a(2000). 전계서, pp. 315-333.

38) 엄소희·김문숙b(2000). 현대복식의 패러다임: 아방가르드의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 경춘사, p. 52.

39) 팽문영(2009). 전계서, p. 27.

고 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로맨틱한 느낌을 가져다주지만 아방가르드
한 방식으로 과도하거나 파괴한 표현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⁴⁰⁾ 장식은 의상 외에도 화장이나 장신구, 향수를 이용한 일시적인
것이든, 피어싱(Piercing), 문신, 상흔, 입술꽃이처럼 영구적인 것이든, 신
체를 장식하는 것은 모든 문화권에서 나타나다.⁴¹⁾ 복식의 장식성은 화려
한 색채와 소재·다양한 문양·수공예적인 디테일과 트리밍의 사용·다
양한 액세서리의 부가를 통해 귀족적이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특
성을 의미한다.⁴²⁾

(7) 적대성

소외적 적대주의는 반 부르주아적 저항, 반 대중주의적 추상, 반 권위
주의적 해학으로 부르주아에 대한 저항이 반 패션으로 나타나며 대중과
의 결별을 노린 반 대중주의적 추상성을 지니고 형식의 해체, 시공간 개
념의 해체를 표현한다.⁴³⁾ 이에 소외적 적대주의는 대항하거나 반항하는
적대와 대립의 정신으로 부정과 파괴에 대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즉, 아방가르드의 특성중 하나인 적대성의 실체는 모든 가치의 부정과
파괴로서 그것의 찬미는 고상한 취미의 부정으로서 반 부르조아적 저항
성, 고상함에 대한 조롱으로 반 권위주의적 해학성 등을 들 수 있다.⁴⁴⁾

따라서 적대성은 아방가르드가 대중이나 유행을 무시하거나 전통을 탈
피하고 새로운 것이나 개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⁴⁵⁾ 이런 특징이 현
대의 아방가르드 패션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40) 이용섭 외 2인(2015). 전계서, p. 125.

41) 유은옥(2003). 2000년대 초반 로맨틱 스타일의 장식적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

42) 백영자·유효순(1989). 서양의복식문화, 서울: 경춘사, p. 277.

43) 엄소희·김문숙a(2000). 전계서, p. 315.

44) 팽문영(2009). 전계서, p. 11.

45) 윤혜성(2013). 전계서, p. 18.

2. 아방가르드 패션에 대한 고찰

1)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전위파 디자이너의 대모이자 패션에 새로운 로맨티시즘(Romanticism)의 물결을 일으킨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파이어리츠 록(Pirates Lock)으로 뉴 로맨티시즘(New Romanticism)을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⁴⁶⁾, 1980년대 초 말콤 맥라렌과 결별하면서 아방가르드한 로맨틱 핑크 스타일의 본격적인 창조를 시작하였다.⁴⁷⁾

<그림 1>은 비비안 웨스트우드 2016년 F/W 컬렉션의 작품으로 남자 모델을 섹시한 옷을 입은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면 해체성, 정식성, 해학성, 적대적인 특성을 표현하였다. <그림 2>은 2015 S/S 컬렉션의 작품으로 꽃바구니 모자를 응용한 모습이 역사와 장식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위의 작품들을 분석해본 결과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해체성, 정식성, 해학성, 적대적인 아방가르드 특성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46) 장애란(1998). 핑크록이 반영된 Vivienne Westwood 작품의 기호적 해석. 복식, 39(1), p. 205.

47) 이수현(2010). 로맨틱 아방가르드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영국 패션디자이너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4.



<그림 1> Vivienne Westwood
2016 F/W Collection

(출처:<http://runway.vogue.co.kr/2014/01/23/haute-couture-2014-ss-jean-paul-gaultier/#0:13>, 검색일자: 2016. 8. 17)



<그림 2> Vivienne Westwood
2015 S/S Collection

(출처:<http://runway.vogue.co.kr/2014/09/29/ready-to-wear-2015-ss-vivienne-westwood/#0:16>, 검색일자: 2016. 8. 9)

2)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런던의 최고급 맞춤 양복점의 견습생으로 패션을 시작한 알렉산더 맥퀸은 견습한 경력만큼이나 출중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재단방법과 커팅 기술, 삼차원적인 디자인과 무대 연출 등은 패션계에 화제가 되었다. 맥퀸의 패션쇼는 정확한 콘셉트가 있고 패션을 표현수단의 매개로 사용한 이질적인 요소를 ‘(Hybrid Reconstruction)’, 즉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는 아방가르드 경향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다.⁴⁸⁾

<그림 3>은 알렉산더 맥퀸의 2016년 F/W 컬렉션 작품으로 이불처럼 과장하고 두꺼운 원단으로 제작된 원피스는 전체적으로 보면 해학성, 실

48) 김주연·이효진(2005). Alexander McQueen의 패션작품에 나타난 하이브리드(Hybrid) 경향 분석, 복식문화연구, 13(2), p. 313

협성, 적대적인 특성을 표현하였다. <그림 4>은 2012년 F/W 컬렉션의 작품으로 커다란 드레스와 미래적인 안경을 배합한 모습이 역사와 장식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위의 작품들을 분석해본 결과 알렉산더 맥퀸은 미래성, 실험성 장식성, 해학성, 적대적인 아방가르드 특성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Alexander McQueen

2016 F/W Collection

(출처:<http://runway.vogue.co.kr/2016/02/22/ready-to-wear-2016-fall-alexander-mcqueen-collection/#0:40>, 검색일자: 2016. 9. 10)



<그림 4> Alexander McQueen

2012 F/W Collection

(출처:<http://runway.vogue.co.kr/2009/06/08/ready-to-wear-2009-fw-alexander-mcqueen/#0:38>, 검색일자: 2016. 8. 16)

3)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1980년대 프랑스 패션계의 악동이라는 별명을 얻은 장 폴 고티에는 데뷔 이후 전위적이고 섹시하게 또는 유머러스하고 도발적인 메시지를 담아 표현하는 등 항상 새로움을 시도하였으며, 장르, 성별, 문화 등 상식의

벽을 허물어 혼합하여 도발적으로 표현하였다.⁴⁹⁾

<그림 5>은 장 폴 고티에 2014년 S/S 컬렉션의 작품으로 가죽의 재킷과 시폰의 치마로 표현한 작품 형태로 역사성, 장식성을 활용을 하였다.

<그림 6>은 2015년 S/S 컬렉션의 작품으로 외상인 모양으로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머리 장식을 미래적으로 표현하여 과장성이 드러났다. 이 작품에는 장식적, 미래적, 해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위의 작품들을 분석해본 결과 장 폴 고티에는 역사적, 장식적, 미래적, 해학적인 아방가르드 특성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Jean Paul Gaultier

2014 S/S Collection

(출처:<http://runway.vogue.co.kr/2014/01/23/haute-couture-2014-ss-jean-paul-gaultier/#0:13>, 검색일자: 2016. 7. 19)



<그림 6> Jean Paul Gaultier

2015 S/S Collection

(출처:<http://runway.vogue.co.kr/2014/09/29/ready-to-wear-2015-ss-jean-paul-gaultier/#0:63>, 검색일자: 2016. 6. 16)

49) 최은진(2003). 장 폴 고티에(Jean-Paul Gaultier)의 작품이 현대 패션에 준 영향에 관한 연구: 아방가르드와 표현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1.

4) 파코 라반(Paco Rabanne)

파코 라반은 새로운 현상의 창조자라는 별명이 나타내는 것처럼 그는 전통에 상관하지 않고 새로운 소재 사용 ,비전통적인 의복 구성, 인체 표현 방법의 다양성 추구, 타 영역과의 상호 연관성을 통해 새로운 스타이 너로 자리 잡고 있다.⁵⁰⁾

<그림 7>은 파코 라반 2012 S/S 컬렉션의 작품으로 고풍택 비닐소재를 응용하여 심미하면서 미래성, 실험성, 장식성, 해학성 ,적대적인 특성을 표현하였다. <그림 8>은 2015 F/W 컬렉션의 작품으로 역사와 장식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위의 작품들을 분석해본 결과 파코 라반은 미래성, 실험성, 장식성, 해학성 ,적대적인 아방가르드 특성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Paco Rabanne

2012 S/S Collection

(출처:<http://blog.naver.com/hyoiaary/7012050>
5741, 검색일자: 2016. 6. 29)



<그림 8> Paco Rabanne

2015 F/W Collection

(출처:<http://runway.vogue.co.kr/2015/03/06/ready-to-wear-2015-fw-paco-rabanne/#0:18>, 검색일자: 2016. 7. 6)

50) 이봉덕·양숙희(2001). 파코 라반 작품에 표현된 다원주의. 복식문화연구, 9(1), pp. 143-144.

5)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마크 제이콥스는 패션이라는 영역에 들어서게 된 계기에 대해 “나는 디자이너이기에 앞서 한 명의 관찰자이다. 디자이너 이전에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패션을 바라봄으로써 자신만의 패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루이비통(Louis Vuitton)에서는 의상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자신의 디자인 세계를 브랜드 이미지와 조화시켰고, 현대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혁신적 이미지를 전개하였다⁵¹⁾.

<그림 9>는 마크 제이콥스 2010년 S/S 컬렉션의 작품으로 모델 속옷 겹으로 입고 얼굴 흰색으로 화장한 모습을 보면 해체성, 장식성, 해학성, 적대적인 특성을 표현하였다. <그림 10>은 2015년 F/W 컬렉션의 작품으로 리본 목도리를 응용하고 역사와 장식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위의 작품들을 분석해본 결과 마크 제이콥스는 해체성, 장식성, 해학성 역사성, 적대적인 아방가르드 특성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51) 김선영(2014). Marc Jacobs 패션 콜레보레이션의 가치 탐색. 복식문화연구. 22(3), pp. 384-385.



<그림 9> Marc Jacobs

2010 S/S Collection

(출처: <http://runway.vogue.co.kr/2009/09/25/ready-to-wear-2010-ss-marc-jacobs/#0:26>, 검색일자: 2016. 9. 7)



<그림 10> Marc Jacobs

2016 F/W Collection

(출처: <http://runway.vogue.co.kr/2016/02/19/ready-to-wear-2016-fall-marc-jacobs-collection/#0:16>, 검색일자: 2016. 9. 2)

6) 앤 드뮐미스터(Ann Demeulemeester)

테일러 링의 여왕인 앤 드뮐미스터의 의상철학은 늘어뜨림의 미학이며 디자인은 단지 몸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디자이너이다. 그래서 디자인을 옷과 옷감을 최종적으로 착용한 사람, 그리고 그 자체의 체계에 따라 조절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의복이야말로 생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작품 하나하나에 생명을 쏟는 것처럼 디자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디자이너이다.⁵²⁾

<그림 11>은 비비안 웨스트우드 2016년 F/W 컬렉션의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장식성, 미래적인 특성을 표현하였다. <그림 12>는 2016 S/S 컬렉션의 작품으로 꽃 해체성, 적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위의 작품들을 분석해본 결과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해체성, 장식성, 적

52) 조은주(2010). 벨기에 패션의 네오아방가르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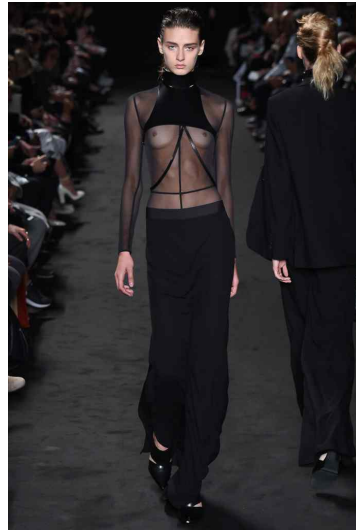
대적인 아방가르드 특성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Ann Demeulemeester

2010 F/W Collection

(출처: <http://runway.vogue.co.kr/2010/04/19/ready-to-wear-2010-fw-ann-demeulemeester/#0:18>, 검색일자: 2016. 6. 18)



<그림 12> Ann Demeulemeester

2016 S/S Collection

(출처: <http://runway.vogue.co.kr/2015/10/02/ready-to-wear-2016-ss-ann-demeulemeester-collection/#0:29>, 검색일자: 2016. 6. 16)

3.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에 대한 고찰

1)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의 발생 배경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은 문화 콘텐츠의 역할을 함으로써 당 시대나 역사, 민족적 미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그들 삶의 반영이라 할 수 있는 독특한 미의식이 형성되며, 그러한 문화적 움직임과 당 시대에 형성된 미의식은 그 원형이 보존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거나 잠식되어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거나 또 다시 역사가 되고 제도적인 자리매김으로써 항상 미래의 상황을 위한 원천이 되고 토대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³⁾ 20세기 복식은 허리를 중심으로 하는 형태를 이끌던 코르셋으로부터 해방되어 전에 없는 조형적 자유를 획득했고, 복식과 몸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러한 양상은 소재에서의 두드러진 발전, 의복구성법의 발전, 예술적인 발상과의 호흡, 서구문화의 문맥 밖으로부터의 복식조형의 도입 등의 여러 요소에 힘입어,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조형의 가능성을 넓혔다.⁵⁴⁾

일본은 소위 소프트 아방가르드라는 패션사조를 등장시키며 1980년대에 서양, 그것도 패션의 본고장인 파리에 입성하였다. 소프트 아방가르드란 기존의 서양 복식 스타일을 깨고 최소한의 격식만 차리는 미니멀리즘으로서 동양의 선(禪, zen) 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디자인 되었다.⁵⁵⁾ 선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 각자 자신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 자체를 직접적으로 자각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공을 작가하는 것이고 인간 존재 자체의 진면목이며 우주체

53) 채혜숙(2010). 전계서, p. 36.

54) 임은혁(2007).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의 미학 : 몸의 평면화를 중심으로, 복식, 57(1), p. 55.

55) 최영옥(2007). 하나에 모리 의상에 나타난 미적 특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9(6), p. 615.

를 자각하는 것이 된다.⁵⁶⁾ 일본의 전통적인 ‘꾸밈’계 문화와 ‘반꾸밈’계 문화의 대조적인 두 조류가 있으며, 반꾸밈은 와비사비의 미학, 그리고 와비는 중세 이래 등장한 예술 이념의 일종으로 초암에 사는 은둔자의 빈곤함과 그로 인한 고층의 달관 및 세속을 초월한 풍아를 나타내고, 소박, 간소함 속에서 깊고 풍요로움을 구가하고 지고의 미를 찾는 개념이다.⁵⁷⁾

일본에 현대식과 같은 서양의 옷이 보급되기 이전 일본인이 입었던 의복을 기모노(着物)라고 부르는데 처음 이 단어는 일본문화와 서양문화를 구별하는 별 다른 의미는 없었다. 하지만 메이지(明治)시대 이후, 서양식 현대 의복을 입는 사람이 급증함에 따라 구별하기 위해 일본 재래의 의복을 와후쿠(和服)라고 부르게 되었다.⁵⁸⁾ 초기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분리된 형태였으나 점차 길이가 길어지면서 넓은 소매가 달리게 되었으며, 무더운 여름에도 적합하도록 통기성이 좋고 품이 넉넉한 포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포 형태의 복식에서 추운 겨울에는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모노를 몇 개씩 겹쳐 있는 방식이 발달했다.⁵⁹⁾ 기모노는 앞에서 여미고 오비로 묶어 입는 원피스형 의복으로 양복과 같이 단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인체의 곡선을 무시한 직선재단의 의복⁶⁰⁾으로 연령대, 착용목적, 계절, 개인의 취향, 계급이나 부류에 따라 분류되며 그에 따른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난다.⁶¹⁾ 또한 서구의 구조적인 실루엣과 달리 비구조적인 실루엣을 가진 일본 패션은 인체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강조,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라인이 연출되거나 옷을 걸쳐 입는 레이어링을

56) 한경미(2004). 일본 패션 디자이너의 의상에서 나타난 Zen-style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5.

57) 이정후·양숙희(1997). 현대 일본복식에 나타난 선미학적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7), p. 1185.

58) 김화숙(2008). 기모노에 내재된 일본의 전통적 미의식에 관한 고찰.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7.

59) 홍나영 외 2인(2004). 아시아 전통복식. 서울: 교문사. p. 51.

60) 윤상인 외 15인(2000). 일본을 강하게 만든 문화코드 16. 대전: 나무와 숲. p. 32.

61) 김정하 외 2인(2010). 현대 패션에 나타난 기모노 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6(2), p. 132.

통해 단정하게 차려 입는 서구 복식의 전형적인 착용법과 비교되는 자유분방한 스타일을 제시했다.⁶²⁾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은 하위문화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하위문화의 기원은 영국에서 일어났으며 미디어 등 통신수단에 의해 일본은 점차 주류의 청소년 문화와의 변화를 통해, 독특한 하위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자본을 형성해나가고 있다.⁶³⁾ 하위문화는 전체적 문화로부터 상대적으로 구별되는 독자성을 가지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전체문화 속에서는 채울 수 없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할 때가 많으며, 심리적인 지주(支柱) 구실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동시에 다양한 서브컬처의 존재는 문화의 획일화를 방지하고 문화에 동태성과 활력을 불어넣는 작용을 한다.⁶⁴⁾ 일본의 하위문화는 영미(英美)의 하위문화 발생배경인 특정한 사상과 정치적인 주장보다는 그 안의 외향적 특징만을 중시하고, 이미지화하여 시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이 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⁶⁵⁾ 일본에서는 주류문화를 “학교나 정부가 인정하는 것, 국가가 시민을 양성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양”으로 정의하며, 이에 대항하는 젊은이의 문화, 기존 권위가 인정하지 않는 문화를 폭넓게 하위문화로 일컫는 경향이 있다.⁶⁶⁾ 이와 같이 일본의 아방가르드 패션은 문화현상을 반영하여 과거의 거부나 파괴를 나타내고 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트렌드에서 일본의 아방가르드 패션은 일본 전통문화, 패션 트렌드, 선문화, 하위문화 등에서 일본 고유의 정체성을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62) 최영욱(2007). 전계서, p. 615.

63) 새린 킨셀라(2000). 1990년대 일본의 하위문화 연구: 오타쿠와 아마추어 망가 운동. 만화애니메이션연구, 4, p. 313.

64) 김고은(2014). 하위문화로서 가루 뷰티스타일 특성.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

65) 박주희(2009). 2000년대 한국·일본 청년 하위문화 스타일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2.

66) wikipedia. <https://ja.wikipedia.org/wiki/%E3%82%B5%E3%83%96%E3%82%AB%E3%83%AB%E3%83%81%E3%83%A3%E3%83%BC>, 검색일자: 2016.9.12.

2)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의 디자인 요소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의 디자인 요소를 연구하는데 있어 디자인의 핵심이 되는 실루엣, 색채, 그리고 소재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여 전체적인 일본 아방가르드 스타일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실루엣

일본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은 서구 전통복식의 구조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디자이너의 상상력에 따라 해체하고 조립하거나, 일부를 분리하여 이질적인 복식요소와 결합시키거나, 위치를 이동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디자인에서는 전통적인 디자인의 원리가 해체되면서 기존의 복식구조와 의 대립에 의한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 제공된다.⁶⁷⁾ 또한 일본 전통복식 형태의 특징으로 평면적인 재단법과 직선사용, 오비로써 평평하여 실루엣이 직선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직선을 강조한 실루엣도 나타난다.⁶⁸⁾ <그림 13>은 언더커버의 2014년 F/W 컬렉션으로 여유가 있고 직선 형태로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을 일본 전통복식의 형태를 나타낸다. 꼼데 가르송의 2012년 S/S 컬렉션에서도 아방가르드의 특성 중 미니멀리즘에 영향을 받아 여성적인 실루엣이 강조되기보다는 직선의 형태로 디자인하였으며, 팔 길이의 강조와 어깨장식의 부각으로 아방가르드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그림 14). <그림 15>은 이세이 미야케의 2011년 F/W 컬렉션으로 일반적인 실루엣의 옷이 아닌 조형물의 하나처럼 보인다. 하나의 끈이 겹쳐져 딱지치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에서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유희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그림 16>은 꼼데 가르송의 2016년 S/S 컬렉션으로 하나의 튜립과 같은 모티브를 여러 개 붙여

67) 임은혁(2011).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에 표현된 서구 전통복식의 혼성모방, 복식, 19(5), pp. 978-979.

68) 한경미(2004). 전계서, p. 14.

디자인하여 신체의 실루엣을 확장시켰다.



<그림 13> Undercover
2014 F/W Collection I

(출처:<http://runway.vogue.co.kr/2014/02/27/ready-to-wear-2014-fw-undercover/#0:5>,
검색일자: 2016. 6. 20)



<그림 14> Comme des Garçons
2012 S/S Collection

(출처: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33&collection=29026&image=4083672#.WFjyD1WLSUk,
검색일자: 2016. 6. 27)



<그림 15> Issey Miyake
2011 F/W Collection

(출처:<http://runway.vogue.co.kr/2011/04/22/ready-to-wear-2011-fw-issey-miyake/#0:0>,
검색일자: 2016. 7. 3)



<그림 16> Comme des Garçons
2016 F/W Collection

(출처: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43&collection=44189&image=6378784#.WFjx0FWLSUk,
검색일자: 2016. 7. 19)

(2) 색채

색채에 있어서 자연성의 추구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에크루(ecru)와 같이 가공되지 않은 색상과 빛이 바래서 퇴색해 버린 듯한, 저명도·저채도의 색상⁶⁹⁾으로 표현된다.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 디자인의 색채에 있어서 흑백의 조화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일본정서를 표현하는 색채의 하나로 가장 고급스러운 색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⁷⁰⁾ <그림 17>는 요지야마모토의 2016년 F/W 컬렉션으로 흑백의 일본전통의 영향을 받아 흑과 백의 단색만을 사용하여 전통적이 색을 나타내고, 과장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곡선미를 나타냄으로 간결하게 표현했다. 이세이 미야케의 2014년 F/W 컬렉션에서도 가공되지 않은 자연의 색상처럼 저명도, 저채도의 그레이 색상으로 순수하고 간결한 아름다움을 나타냈다(그림 18). <그림 19>는 겐조의 2016년 F/W 컬렉션으로 페일톤의 단일 색상의 투피스로 화려함보다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냈다. 반면 화학섬유의 빛나고 강렬한 원색의 색상도 나타났다. 특히 전통적인 일본 섬유 디자인에 중점을 두어 제작한 다양한 비비드 색상으로 패션디자인을 연출하고 있다. 따라서 강렬한 색상대비를 활용한 표현이 독특한 특징이다.⁷¹⁾ 꼼데 가르송의 2013년 F/W 컬렉션인 <그림 20>는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였고, 하나의 색상이 아닌 멀티컬라의 응용으로 화려한 이미지를 강조시킨다.

69) 이경아(1997). 복식의 자연주의 양식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1.

70) 한경미(2004). 전계서, p. 21.

71) 정재연(2006). 전계서, pp. 418-419.



<그림 17> Yohji Yamamoto

2016 F/W Collection

(출처: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39&collection=44183&image=6377599#.WE1yKNWLSUk, 검색일자: 2016. 7. 22)



<그림 18> Issey Miyake

2014 F/W Collection I

(출처:<http://runway.vogue.co.kr/2014/03/03/ready-to-wear-2014-fw-issey-miyake/#0:21>, 검색일자: 2016. 6. 27)



<그림 19> Kenzo

2016 F/W Collection I

(출처:<http://runway.vogue.co.kr/2016/03/09/ready-to-wear-2016-fall-kenzo-collection/#0:21>, 검색일자: 2016. 8. 1)



<그림 20> Comme des Garçons

2013 F/W Collection I

(출처:<http://runway.vogue.co.kr/2013/05/20/ready-to-wear-2013-fw-comme-des-garcons/#0:31>, 검색일자: 2016. 7. 17)

(3) 소재

일본의 디자이너들은 텍스타일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작업하며, 섬유화학 테크놀러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합성소재를 고급스러운 예술적인 소재로 변신시킨다.⁷²⁾ 이처럼 패션 디자이너와 섬유디자이너의 성공적인 협력에 의한 고도의 기술력과 일본의 전통 직물의 융화에 의한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섬유디자인을 개발하여 서구의 패션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⁷³⁾ 언더커버의 2016년 F/W 컬렉션인 <그림 21>은 화려한 깃털소재의 스커트와 일반적인 의류원단의 사용으로 서로 다른 소재들의 믹스매치하고 나무를 연상시키는 헤어장식을 통해 아방가르드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언더커버의 2014년 F/W 컬렉션에서도 누빔과 밧줄을 연상시키는 퍼라는 이질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디자인하였다(그림 22). <그림 23>은 이세이 미야케의 2016년 F/W 컬렉션으로 자신만의 대표적인 주름가공 기법으로 다양한 혁신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는 디자인을 나타냈다. 다양한 색상과 구조적인 실루엣이 나타나는 디자인을 통해 미래 주의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이세이 미야케의 2015년 S/S 컬렉션에서도 크기가 변화된 주름 소재를 개발하여 디자인하였다(그림 24).

72) 임은혁(2007). 전계서, p. 60.

73) 정재연(2006). 전계서, p. 415.



<그림 21> Undercover

2016 F/W Collection I

(출처: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28&collection=44181&image=6377391#.WFjytVWLSUk, 검색일자: 2016. 7. 13)



<그림 22> Undercover

2014 F/W Collection II

(출처:<http://runway.vogue.co.kr/2014/02/27/ready-to-wear-2014-fw-undercover/#0:14>, 검색일자: 2016. 7. 15)



<그림 23> Issey Miyake

2016 F/W Collection

(출처:<http://runway.vogue.co.kr/2016/03/05/ready-to-wear-2016-fall-issey-miyake-collection/#0:32>, 검색일자: 2016. 8. 15)






<그림 24> Issey Miyake

2015 S/S Collection

(출처: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91&collection=40176&image=5716059#.WFjybVWLSUk, 검색일자: 2016. 8. 20)

<표 1>은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에 나타난 디자인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의 디자인 요소

구분 유형	방법	내용 및 특징	사례
디자인 요소	실루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이트 실루엣으로 간결하게 표현 • 인체의 특정부분 강조, 왜곡, 변형 • 조형적 오브제의 사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백의 조화 • 모노톤의 사용으로 미니멀리즘 특성을 나타냄 • 다양한 색상과 색조의 사용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소재의 결합 •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 • 신소재, 특수소재의 개발 	

3)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 디자이너 사례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일본의 패션 디자이너는 하나에 모리(Hanae Mori),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 요지야마모토(Yohji Yamamoto), 다카다 겐조(Takada Kenzo),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 고시노 미치코(Koshino Michiko), 오바나 다이ске(Obana Daisuke), 치토세 아베(Chitose Abe), 준 타카하시(Jun Takahashi)를 들 수 있다. 다음은 일본 디자이너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1) 하나에 모리

하나에 모리 작품을 1970년대부터 2004년 7월 은퇴하기까지 작품경향을 분석한 결과 작품 대부분은 외적인 형태는 신체에 밀착되는 서양복식 형태를 추구하나, 내적인 아름다움은 기모노의 정신이 기본 바탕을 이루어 기모노 형태 재현, 전통 착장법 응용, 전통형태 응용, 전통문양 응용으로 나타났다.⁷⁴⁾ <그림 25>는 2002년 F/W 컬렉션으로 여성의 아름다운 곡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드레스로 화려한 색감과 꽃무늬를 이용하여 화려함을 나타내고 있다. 부분적인 특징으로는 비대칭적인 구조의 자율적인 표현성과 감각적인 울동감, 그리고 세련된 느낌을 주며, 의복 표면을 입체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꽃이나 리본, 나비, 부채 등으로 장식(그림 26)을 하거나 주름으로 인한 3차원적인 음영의 효과와 부드러운 울동감과 입체감이 있는 레이어링으로 의복의 표면을 장식하였다.⁷⁵⁾

74) 최영옥(2007). 전계서, p. 617.

75) 박지영(2000). 모리 하나에 패션디자인의 조형미 연구: 199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5.



<그림 25> Hanae Mori
2002 F/W Collection

(출처: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90&collection=2606&image=447688#.WFVc3FWLSUk, 검색일자: 2016. 7. 4)



<그림 26> Hanae Mori
2015 S/S Collection

(출처: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79&collection=40447&image=5750764#.WErSr9WLSUk, 검색일자: 2016. 6. 20)

(2) 이세이 미야케

이세이 미야케는 자연의 색상과 천연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환경과 자연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보편성을 지닌 의복을 추구하였다.⁷⁶⁾ <그림 27>은 2014년 F/S 컬렉션 작품으로 활동성이 편한 플리츠를 응용하여 디자인하였다. 디자이너의 철학인 여성에 대한 배려, 예술가와의 폭넓은 교류를 나타내기 위해 플리츠를 응용한 디자인과 누구나 착용 가능한 디자인을 하였으며, 자유감정의 존중을 위해 인체 선을 왜곡하거나 조형성을 극대화한 입체적인 디자인을 하였고(그림 28), 전통의 재인식을 통해 일본 전통직물에 현대식 사고를 도입한 디자인과 기모노, 일

76) 하승연·이연희(2012). 이세이 미야케의 패션에 표현된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 복식, 62(3), p. 63.

본유지, 일본의 작업복, 유도복 등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여 디자인하였다.⁷⁷⁾



<그림 27> Issey Miyake
2014 F/W Collection II

(출처: <http://runway.vogue.co.kr/2014/03/03/ready-to-wear-2014-fw-issey-miyake/#0:36>, 검색일자: 2016. 7. 28)



<그림 28> Issey Miyake
2016 F/W Collection

(출처: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66&collection=44177&image=6376905#.WErj6dWLSUk, 검색일자: 2016. 8. 4)

(3) 레이 카와쿠보

레이 카와쿠보의 패션이 기존의 관습과 조화의 상식에서 벗어나 변형되고 왜곡된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형태의 파괴, 색상의 부재, 재료의 파괴의 특성으로 표현하였다. 형태의 파괴는 기능 및 소재의 파괴에 의한 비정형적이고 비대칭적인 형태로 표현하며, 신체의 비율을 왜곡시키며, 규칙이 없는 형태를 나타낸다.⁷⁸⁾ <그림 29>은 2013년 F/W 컬렉션 작품으로 소매의 과장과 신체의 왜곡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개의 소매를 연

77) 김미성·배수정(2003). 이세이 미야케의 패션철학을 통해 나타난 디자인 특징에 관한 연구. 복식, 53(6). p. 171.

78) 전은비(2010). 레이 카와쿠보이 패션과 공간에 나타난 사고와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3-44.

결하여 표현하였다. 블랙은 모든 색상을 아우르는 최종적인 색상을 의미하여 장식의 배제된 절제된 선과 블랙의 확장으로 색상의 부재를 나타낸다. <그림 30>은 2016년 F/W 컬렉션 작품으로 색상의 부재를 잘 표현하고 있다. 블랙을 바탕으로 레드의 색상의 모자를 장식하여 절제된 과장됨을 나타낸다. 소재의 파괴는 다양한 형태 실현을 위하여 실험적인 소재 및 양감이 느껴지는 소재를 사용하고 또한 투명과 불투명, 블랙과 레드 등 이질적인 소재를 혼합하여 믹스매치 시켜 표현하였다.



<그림 29> Comme des Garçons
2013 F/W Collection II

(출처: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28&collection=35384&image=5020418#.WEw2d03_qUk, 검색일자: 2016. 9. 27)



<그림 30> Comme des Garçons
2016 F/W Collection

(출처: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0&collection=43039&image=6117945#.WEw1QE3_qUk, 검색일자: 2016. 10. 14)

(4) 요지야마모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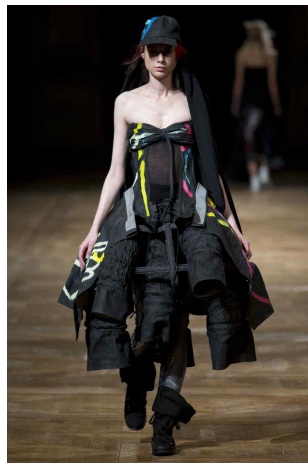
요지야마모토는 깔끔하고 정돈되고, 획일적인 선과 구조를 거부하면서, 헐렁하고 편안한 느낌의 실루엣, 어둡고 색을 배제하고 형태를 추상화함

으로서 일본적이고 동양적인 심미함을 주는 옷, 봉제가 최소화된 미완성의 옷, 그리고 장식을 배제한 금속주의적인 요소 등은 서구의 옷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동양의 문화와 패션으로 세계 패션의 흐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패션의 예술성, 조형성을 창조하였고, 일본의 전통복식의 특징에서 일본고유의 아름다움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⁷⁹⁾ <그림 31>은 2014년 S/S 컬렉션 작품으로 어두운 색상의 사용과 어깨선이 봉제가 되지 않은 미완성의 재킷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나타냈다. 장식을 배제한 기본적인 디자인을 통해 깔끔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였으며 일본 복식의 차분한 느낌을 표현하여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2016년 S/S 컬렉션 작품에서는 어두운 색상의 사용하였지만 여러 개의 바지들이 스커트를 이루고 있어 해체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32)



<그림 31> Yohji Yamamoto
2014 S/S Collection

(출처: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28&collection=37381&image=5278277#.WFVgZFWLSUk,
검색일자: 2016. 7. 4)



<그림 32> Yohji Yamamoto
2016 S/S Collection

(출처:<http://www.vogue.co.uk/shows/spring-summer-2016-ready-to-wear/yohji-yamamoto/collection/>, 검색일자: 2016. 7. 13)

79) 최정연(2009). 요지 야마모토 의상에 표현된 미의식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5(3). p. 458.

(5) 다카다 겐조

다카다 겐조는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융합한 스타일을 통해 독창적이면서 도전적이고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대담한 색과 뜻밖의 소재 이 두 가지를 융합시키는 정교함이 있으며 판화처럼 아름다워 색채의 마술사라고 칭송받기도 하였다. 색채감각은 늘 사용하는 꽃무늬 디자인에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그는 선명한 색의 강한 색채대비 현상을 많은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다.⁸⁰⁾ <그림 33>은 2015년 F/W 컬렉션 작품으로 봄을 연상시키는 얇은 소재의 원피스에 무스탕 아우터를 매치시켜 이질적인 소재지만 색상의 통일을 주어 도전적인 디자인을 하였다. 또한 <그림 34>은 2014년 F/W 컬렉션 작품으로 색채의 마술사라 불릴 만큼 화려한 색상의 스커트와 화려한 무늬를 수놓은 수트의 매치를 통해 디자인하였다.



<그림 33> Kenzo

2015 F/W Collection I

(출처: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32&collection=41740&image=5936289#.WEw7Pk3_qUk, 검색일자: 2016. 8. 4)



<그림 34> Kenzo

2014 F/W Collection I

(출처: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9&collection=38871&image=5502487#.WEw9nU3_qUk, 검색일자: 2016. 8. 28)

80) 정연자(1993). 다카다 겐조의 작품에 관한 연구. 복식, 21. p. 210.

(6) 준야 와타나베

준야 와타나베는 자신의 스승인 레이 카와쿠보처럼 혁신적이고 독특한 옷을 디자인하였으며, 합성 및 선진 기술 섬유 및 직물에 관심을 가진 디자이너로 현대 기술 재료 중 비정상적으로 구조화 된 옷을 디자인하는 ‘테크노 패션’ 디자이너로 자리 잡았다.⁸¹⁾ <그림 35>은 2012년 S/S 컬렉션으로 꽃무늬의 원피스에 어깨에 플라운스로 화려하게 장식한 가죽재킷을 매치하여 구조적인 디자인을 나타냈다. <그림 36>은 2016년 S/S 컬렉션 작품으로 화려한 패턴의 원피스 위에 가죽으로 만들어진 갑옷과 같은 형태의 상의와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한 긴 형태의 모자를 착용함으로써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나타냈다.



<그림 35> Junya Watanabe
2012 S/S Collection

(출처: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48&collection=29013&image=4080685#.WFVjvVWLSUk,
검색일자: 2016. 8. 4)



<그림 36> Junya Watanabe
2016 S/S Collection

(출처:<http://runway.vogue.co.kr/2015/10/04/ready-to-wear-2016-ss-junya-watanabe-collection/#0:22>, 검색일자: 2016. 7. 13)

81)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Junya_Watanabe, 검색일자: 2016.8.11.

(7) 고시노 미치코

고시노 미치코는 모험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으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⁸²⁾ <그림 37>은 2001년 S/S 작품으로 런던의 음악 장르에 큰 영향을 받아 공기로 부풀려 디자인한 풍선시리즈이며, 네오플렌을 처음 타운웨어로 사용하는 등 특징적인 디자인을 하였다.⁸³⁾ 고시노는 새로운 직물로 디자인하기 위해 소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독특한 직물을 통해 혁신적인 옷을 디자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므로 패션의 경계를 변화시켰다(그림 38). 고시노의 디자인은 섹시하면서도 편안하며, 젊고 트렌디한 소비자를 위한 것이며,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결합할 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특성도 포함된다.⁸⁴⁾



<그림 37> Michiko Koshino
2001 S/S

(출처:<http://www.michikokoshino.co.jp/collection/page/2/>, 검색일자: 2016. 9. 4)



<그림 38> Michiko Koshino
2005 F/W Collection

(출처: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45&collection=7200&image=1055164#.WEXFiE3_qUk, 검색일자: 2016. 7. 20)

82) Fashionbiz, <http://m.fashionbiz.co.kr/index.asp?idx=102465>, 검색일자: 2016.8.15.

83) Michiko London, <http://www.michikokoshino.co.jp/>검색일자: 2016.7.11.

84)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Michiko_Koshino, 검색일자: 2016.8.19.

(8) 오바나 다이스케

오바나 다이스케는 미스터 할리우드(N.HOOLYWOOD)의 디자이너로 현 옷에 새로운 컨셉이나 가치관을 더해서 디자인되는 새로운 개념의 브랜드이다. 다이스케는 현 옷의 장점과 새로운 기능성을 찾아내어 시즌마다 독창적이고 기존의 디자이너들이 선택하지 않는 테마를 선정하여 디자인한다. 재생, 의료, 알래스카 에스키모, 스파이, 우주옷 등이 테마 등을 통해 현대적인 디자인을 나타낸다.⁸⁵⁾ <그림 39>은 2011년 S/S 컬렉션으로 죄수복을 연상시키는 스트라이프 무늬의 옷과 모자, 촬영 장소를 통해 디자인하였고, <그림 40>은 2014년 S/S 컬렉션으로 서구영화에 장면을 연상시키는 카우보이 디자인을 통해 시즌 마다 디자이너의 독특한 가치관을 나타낸다.



<그림 39> N Hoolywood
2011 S/S Collection

(출처: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23&collection=25148&image=3479286#.WExGnk3_qUk,
검색일자: 2016. 8. 17)



<그림 40> N Hoolywood
2014 S/S Collection

(출처: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8&collection=36641&image=5169537#.WExHZU3_qUk,
검색일자: 2016. 8. 24)

85) N. HOOLYWOOD, <http://n-hoolywood.tumblr.com/>, 검색일자: 2016.7.30.

(9) 치토세 아베

치토세 아베는 다양한 소재를 결합하고 변주해 새롭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이다. 치토세 아베의 디자인은 니트 같이 질감이 느껴지는 패브릭과 실크, 쉬폰 같은 얇은 직물을 함께 사용해 패턴을 재해석하며, 소재의 믹스매치를 통해 표현한다.⁸⁶⁾ <그림 41>은 다섯 가지 소재를 섞은 레이스 디테일의 드레스로. 서너 벌의 옷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또한 <그림 42>은 2015년도 F/W 컬렉션 작품으로 가죽, 퍼, 니트 등 이질적인 재료들을 결합하여 여성코트를 디자인하였다. 이처럼 평범한 것을 살짝 변화시켜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41> Sacai
2016 S/S Dress

(출처:<http://news.joins.com/article/20019134>
, 검색일자: 2016. 8. 24)



<그림 42> Sacai
2015 F/W Collection

(출처: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66&collection=41754&image=5938542#.WEwtQE3_qUk,
검색일자: 2016. 7. 14)

86) Week&+, <http://news.joins.com/article/20019134>, 검색일자: 2016.8.20

(10) 준 타카하시

준 타카하시는 패션계에서 영원히 이상으로 표현되며, 독창적인 디자이너이다. 파리에서 열린 언더커버 컬렉션에서는 늘 이상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반대로 스마트하게 비틀어 평상시에 입을 만한 옷들도 디자인된다.⁸⁷⁾ <그림 43>은 2014년 F/W 컬렉션으로 백설공주를 연상시키는 사과와 이집트인의 머리장식인 다이어뎀을 연상시키는 관을 통해 잔혹동화의 주인공 같은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그림 44>은 2016년도 S/S 컬렉션 작품으로 재킷을 뒤집어 입은 것 같이 안감이 겉으로 표현되어 디자이너만의 독특한 감성을 잘 나타낸다.



<그림 43> Undercover

2014 F/W Collection II

(출처:<http://runway.vogue.co.kr/2014/02/27/>)

ready-to-wear-2014-fw-undercover/#0:32,

검색일자: 2016. 7. 20



<그림 44> Undercover

2016 S/S Collection

(출처:[http://www.firstview.com/collection-ready-to-wear-2014-fw-undercover/#0:32,](http://www.firstview.com/collection-ready-to-wear-2014-fw-undercover/#0:32,_image_closeup.php?of=104&collection=43047&image=6119245#.WFVqM1WLSUk)

[_image_closeup.php?of=104&collection=43047&image=6119245#.WFVqM1WLSUk,](http://www.firstview.com/collection-ready-to-wear-2014-fw-undercover/#0:32,_image_closeup.php?of=104&collection=43047&image=6119245#.WFVqM1WLSUk)

검색일자: 2016. 7. 4)

87) VOGUE KOREA. <http://www.vogue.co.kr/2014/12/08/%EC%96%B8%EB%8D%94%EC%BB%A4%EB%B2%84-%EC%A4%80-%EB%8B%A4%EC%B9%B4%ED%95%98%EC%8B%9C%EC%9D%98-%EB%8F%84%EC%BF%84-%EC%9E%91%EC%97%85%EC%8B%A4/>, 검색일자: 2016.7.12..

Ⅲ.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디자이너에 나타난

표현요소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아방가르드 패션 디자이너이자 현재까지 활발히 자신만의 컬렉션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카다 겐조, 준야 와타나베, 치토세 아베, 준 타카하시의 컬렉션 작품으로 분석하였다. 작품 사례들을 통해 일본의 아방가르드 패션디자인의 표현요소인 미래성, 해체성, 장식성, 초현실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1. 다카다 겐조

다카다 겐조는 1939년 일본의 효고 현 히메지 시에서 태어나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다.⁸⁸⁾ 1970년대 프랑스 파리에 다카다 겐조가 첫 번째 스토어 ‘정글집’을 오픈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겐조는 세계 탑 브랜드로서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뉴욕에서 가장 주목받는 오프닝 세레모니의 ‘캐롤 림 & 움베르토 레온’ 듀오를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하고 명품 뷰티 브랜드 그룹인 LVMH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도 탑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⁸⁹⁾ 겐조의 가장 찬란한 시대는 2003년 이탈리아 출신의 디자이너 안토니오 마라스를 영입한 이후 비로소 시작되었다. 지난 7년 동안 안토니오 마라스는 겐조라는 패션 하우스의 정신과 자신의 비전 사이의 간격을 영리하게 유지하며 회사를 경영해왔다. 그는 겐조의 전통적인 문화를 주제로 컬렉션을 선보이며 브랜드를 회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⁹⁰⁾

88)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B%8B%A4%EC%B9%B4%EB%8B%A4_%EA%B2%90%EC%A1%B0, 검색일자: 2016.7.13.

89) dkoptic. http://dkoptic.com/brand/brand_view.asp?pg=7, 검색일자: 2016.7.13.

<그림 45>는 2015년 S/S 컬렉션으로 고글과 같은 선글라스의 착용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며, 미래적 간결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의 2014년 F/W 컬렉션에서도 블랙 색상의 수트와 함께 착용한 선글라스를 통해 SF영화의 맨인블랙과 같은 미래에서 온 사람과 같은 인상을 준다(그림 46). 2016년 S/S 맨즈 컬렉션 작품은 돌출되는 것 같은 실험적 소재로 입체적인 상의를 나타냈으며(그림 47), <그림 48>은 2016년 F/W 컬렉션 작품으로 호피 무늬소재를 이용하여 커다란 어깨 패드와 과장된 패턴으로 표현하였고, 색상의 대비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2013년 F/W 컬렉션 또한 금속느낌의 색상과 절제된 세련미를 강조하였고, 입체성이 강조된 조형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49).

2015년 F/W 컬렉션인 <그림 50>은 편안함과 공간성을 강조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해체주의적 성향을 나타냈다. <그림 51>은 2010년 F/W 컬렉션 작품으로 봉제되지 않은 조각을 응용하여 아우터를 디자인하였으며, 미완성된 앞판을 비대칭적으로 매치시켜 겐조만의 특유한 미적 감각을 나타냈다. 2014년 S/S 맨즈 컬렉션은 간결하지만 팝아트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패턴과 절개를 통해 해체주의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52).

90) ELLE. <http://www.elle.co.kr/article/view.asp?MenuCode=en010101&intSno=3945>, 검색일자: 2016.6.13.



<그림 45> Kenzo

2015 S/S Collection

(출처 <http://runway.vogue.co.kr/2014/09/29/ready-to-wear-2015-ss-kenzo/#0:37>,
검색일자: 2016. 7. 12)



<그림 46> Kenzo

2014 F/W Collection II

(출처 <http://runway.vogue.co.kr/2014/03/04/ready-to-wear-2014-fw-kenzo/#0:36>,
검색일자: 2016. 6. 27)



<그림 47> Kenzo Men

2016 S/S Collection

(출처: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56&collection=42299&image=6005206#.WFadZFWLSUk, 검색일자: 2016. 8. 2)



<그림 48> Kenzo

2016 F/W Collection II

(출처: <http://runway.vogue.co.kr/2016/03/09/ready-to-wear-2016-fall-kenzo-collection/#0:47>, 검색일자: 2016. 7. 30)



<그림 49> Kenzo
2013 F/W Collection

(출처: <http://runway.vogue.co.kr/2013/05/20/ready-to-wear-2013-fw-kenzo/#0:3>,
검색일자: 2016. 7. 12)



<그림 50> Kenzo Men
2014 S/S Collection

(출처: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43&collection=36411&image=5135878#.WFae-FWLSUk
검색일자: 2016. 6. 24)



<그림 51> Kenzo

2015 F/W Collection II
(출처: <http://runway.vogue.co.kr/2015/03/09/ready-to-wear-2015-fw-kenzo/#0:0>,
검색일자: 2016. 8. 12)



<그림 52> Kenzo

2010 F/W Collection
(출처: <http://runway.vogue.co.kr/2010/04/19/ready-to-wear-2010-fw-kenzo/#0:4>,
검색일자: 2016. 7. 20)

2. 준야 와타나베

준야 와타나베는 1992년 파리에서 데뷔하여 역동적이면서 유연한 플리츠와 드레이프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았다.⁹¹⁾ 준야 와타나베는 레이 가와쿠보와 함께 폼 데 가르송의 미학적 컨셉을 구축하였으며, 분카 패션 스쿨을 졸업한 후 1984년 폼 데 가르송에 입사하여 패턴사로 일을 시작했다. 3년 뒤 폼 데 가르송의 니트웨어 라인 ‘트리코(Tricot)’의 수석 디자이너가 됐고, 1992년 자신의 라인 ‘준야 와타나베 폼데가르송’ 컬렉션을 런칭하였다.⁹²⁾

준야 와타나베의 2013년 S/S 컬렉션인 <그림 53>은 우주복의 헬멧을 연상시키는 헤어장식과 구조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절개로 인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S/S 컬렉션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조형적 헤어장식과 디자인에 모티브를 통해 나타냈다(그림 54). <그림 55>은 2016년 F/W 컬렉션으로 검정의 미학에 바탕을 두고 조형적인 형태의 원피스를 디자인하여 미래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하고 있다. <그림 56>은 2012년 F/W 컬렉션 작품으로 간결한 디자인의 케이프를 통해 만화이미지를 표현하는 머리 형태로 장식적인 이미지와 미래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7>은 2014년 F/W 컬렉션 작품으로 신체가 드러나지 않게 몸을 감싸는 형태를 표현하였으며, 찢어진 구멍과 구제느낌의 원단으로 제작되어 해체적 디자인을 나타냈다. <그림 58>은 험 라인이 너털너털 찢겨진 듯 하고, 다양한 느낌 표현을 시도함으로써 해체미를 나타내고 있

91) navercast.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5&contents_id=7835, 검색일자: 2016.6.30.

92) VOGUE KOREA. http://www.vogue.co.kr/2016/09/29/collective-intelligence-%e2%91%a0-%ec%a4%80%ec%95%bc-%ec%99%80%ed%83%80%eb%82%98%eb%b2%a0/?_C_=115, 검색일자: 2016.8.19.

다.

<그림 59>은 2011년 S/S 컬렉션 작품으로 이질적인 두 가지의 소재를 믹스 매치하여 디자인하였으며, 얼굴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함으로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2012년 S/S 컬렉션 작품은 과장된 헤어장식으로 얼굴을 가렸으며 검정색상의 구조적인 형태로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60).



<그림 53> Junya Watanabe
2013 S/S Collection

(출처: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7&collection=32898&image=4711525#.WFahYVWLSUk, 검색일자: 2016. 8. 3)



<그림 54> Junya Watanabe
2015 S/S Collection

(출처: <http://runway.vogue.co.kr/2014/09/29/ready-to-wear-2015-ss-junya-watanabe/#0:3>, 검색일자: 2016. 7. 28)



<그림 55> Junya Watanabe
2016 F/W Collection

(출처: <http://runway.vogue.co.kr/2016/03/06/ready-to-wear-2016-fall-junya-watanabe-collection/#0:6>, 검색일자: 2016. 7. 27)



<그림 56> Junya Watanabe
2012 F/W Collection

(출처: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56&collection=30759&image=4342083#.WFahF1WLSUk, 검색일자: 2016. 8. 12)



<그림 57> Junya Watanabe
2014 F/W Collection

(출처:<http://runway.vogue.co.kr/2014/03/03/ready-to-wear-2014-fw-junya-watanabe/#0:35>, 검색일자: 2016. 8. 12)



<그림 58> Junya Watanabe
2014 S/S Collection

(출처:<http://runway.vogue.co.kr/2013/10/07/ready-to-wear-2014-ss-junya-watanabe/#0:4>, 검색일자: 2016. 7. 23)



<그림 59> Junya Watanabe
2011 S/S Collection

(출처:<http://runway.vogue.co.kr/2010/10/26/ready-to-wear-2011-ss-junya-watanabe/#0:6>, 검색일자: 2016. 7. 15)



<그림 60> Junya Watanabe
2012 S/S Collection

(출처: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93&collection=29013&image=4080830#.WFagoVWLSUk, 검색일자: 2016. 6. 18)

3. 치토세 아베

치토세 아베는 꿈 데 가르송과 준야 와타나베에서 일을 하다 출산을 계기로 패션업계에서 떠나있었다. 그러나 니트 5개를 직접 짜서 팔았는데 그것이 사카이란 브랜드의 시초가 되었다. 브랜드 사카이는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으로 이질적인 직감의 소재를 조합하거나 전형적인 옷의 패턴을 재해석한다.⁹³⁾ 또한 치토세 아베는 사카이 잼(SAKAI GEM)과 사카이 럭(SAKAI LUCK)을 시작하여 사카리와 같이 ‘일상생활에 성립하는 디자인’을 컨셉으로 엘레강스한 어른을 위한 란제리, 홈웨어를 디자인하였다.⁹⁴⁾ “누구나 알 수 있을만한 평범한 것을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게 디자인한다.” 라는 사카이의 크리에이션은 레이스와 툴, 프릴과 같은 소재, 디테일을 이용하면서도 평범한 스타일이 아닌 새로운 스타일을 나타내고 있다.⁹⁵⁾

<그림 61>은 2016년 F/W 컬렉션으로 가죽과 쉬폰의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과 재킷의 앞부분에 두 겹이 겹쳐진 것과 같은 형태를 나타내었다. 또한 재킷에 색상이 다른 가죽을 서로 믹스 매치하여 재킷위에 양털 재킷을 입은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며 해체주의적 디자인을 나타내고 있다. 2014년 F/W 컬렉션의 작품은 기본 재킷위에 니트 소재의 재킷을 한 쪽에만 덧입은 것 같이 디자인하여 해체성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62). 2016년 F/W 컬렉션 작품인 <그림 63>은 인조털 원단과 포인트 조각의 망사원단으로 디자인된 코트와 비대칭 치마 형태를 통해 해체주의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2013년 F/W 컬렉션에서도 점퍼에 니트 소재를 매

93) navercast.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636&contents_id=30404, 검색일자: 2016.7.30.

94) sacai. <http://www.sacai.jp/profile/4>, 검색일자: 2016.9.13.

95) koreafashion. http://koreafashion.org/info/info_content_view.asp?num=1147&pageNum=1&catIdx=803&clientIdx=1221&SrchItem=&SrchWord=&flag=2, 검색일자: 2016.8.24.

치하여 두 개의 옷을 입는 듯 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스커트에도 다양한 색상과 무늬를 매치하여 해체주의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64).

2016년 F/W 컬렉션인 <그림 65>은 미래의 첨단소재로 여겨지는 조형적인 느낌의 소재를 가지고 디자인하였으며, 블랙의 메이크업과 패션의 조화를 통해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6>은 2012년 F/W 컬렉션 작품으로 양털소재의 이너와 가죽 재킷을 매치하여 독특한 실루엣을 나타냈으며, 하의도 셔츠와 스커트를 결합하여 실험주의적 미래성을 나타낸다. <그림 67>은 2013년 F/W 컬렉션으로 트롱프뢰유의 눈속임처럼 한 벌의 옷이지만 두벌을 입고 있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며 면, 스웨이드, 레이스의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으로 미래성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S/S 컬렉션에서도 면, 레이스 등의 이질적인 소재와 텍 끝까지 올라오는 네크라인의 변형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68).



<그림 61> Sacai

2016 F/W Collection I

(출처: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47&collection=44226&image=6399373#.WFalh1WLSUk, 검색일자: 2016. 9. 1)



<그림 62> Sacai

2014 F/W Collection

(출처: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12&collection=38887&image=5506324#.WFalE1WLSUk, 검색일자: 2016. 8. 30)



<그림 63> Sacai

2016 F/W Collection II

(출처: <http://runway.vogue.co.kr/2016/03/08/ready-to-wear-2016-fall-sacai-collection/#0:38>, 검색일자: 2016. 8. 1)



<그림 64> Sacai

2013 F/W Collection I

(출처: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64&collection=35470&image=5034280#.WFajWFWLSUk, 검색일자: 2016. 7. 28)



<그림 65> Sacai

2016 F/W Collection III

(출처:<http://runway.vogue.co.kr/2016/03/08/ready-to-wear-2016-fall-sacai-collection/#0:5>, 검색일자: 2016. 7. 12)



<그림 66> Sacai

2012 F/W Collection

(출처: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61&collection=30794&image=4347881#.WFaiuVWLSUk, 검색일자: 2016. 8. 28)



<그림 67> Sacai

2013 F/W Collection II

(출처: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05&collection=35470&image=5034321#.WFajq1WLSUk, 검색일자: 2016. 8. 2)



<그림 68> Sacai

2015 S/S Collection

(출처: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11&collection=40223&image=5724380#.WFamvVWLSUk, 검색일자: 2016. 7. 15)

4. 준 타카하시

준 타카하시는 1988년에 복장문화학원에 입학하였고, 학교를 다니던 중 친구와 함께 시작한 것이 바로 ‘언더커버(Undercover)’였다.⁹⁶⁾ 언더커버 브랜드가 최초 티셔츠에 실크 스크린 프린팅과 콜라주 등 수작업을 통해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동료들과 아파트 옥조에서 만들어냈다는 언더커버의 그래픽 티셔츠는 현재까지 꾸준히 발매되면 큰 사랑을 받고 있다.⁹⁷⁾ 준 타카하시는 2002년에 파리에서 언더커버 컬렉션이 진행됐으며, 독창적 스타일을 지닌 젊은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디자이너로서 그의 기준은 자신이 성장해온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방식이다.⁹⁸⁾

<그림 69>은 2015년 F/W 컬렉션으로 미래패션 본질을 향한 자연스런 인간 상태 그대로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얼굴에 부착된 조형적 아이템을 통해 현실에서 없는 얼굴의 표현으로 기괴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의 2014년 S/S 컬렉션에서도 눈을 가리는 헤어스타일과 아크릴 소재의 상의 등을 통해 미래주의적 이미지를 나타낸다(그림 70).

<그림 71>은 2013년 F/W 컬렉션 작품으로 원피스의 형태지만 가죽재킷의 여러 부분을 서로 겹쳐서 디자인하여 해체주의를 표현하였다. <그림 72>은 2016년 F/W 컬렉션 작품으로 가죽재킷에 셔츠와 면 맨투맨의 세 가지 형태를 모두 믹스 매치하여 디자인하였으며, 스커트에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치마를 서로 매치하여 해체주의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96) undercoverism. <http://www.undercoverism.com/worldofu/>, 검색일자: 2016.7.13.

97) weloveadidas. <http://weloveadidas.com/a-magazine-curated-by-jun-takahashi-undercover/>, 검색일자: 2016.8.1.

98) VOGUE. <http://www.vogue.co.kr/2014/12/08/%EC%96%B8%EB%8D%94%EC%BB%A4%EB%B2%84-%EC%A4%80-%EB%8B%A4%EC%B9%B4%ED%95%98%EC%8B%9C%EC%9D%98-%EB%8F%84%EC%BF%84-%EC%9E%91%EC%97%85%EC%8B%A4/>, 검색일자: 2016.6.30.

2015년 S/S 컬렉션에서도 새를 연상시키는 이미지와 다양한 무늬의 사용, 두 개의 칼라, 가죽과 쉬폰의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 등을 통해 장식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그림 73). <그림 >은 2013년 F/W 컬렉션 작품으로 어깨선이 강조된 트랜치 코트와 낙하산을 연상시키는 커다란 가방과 함께 장식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토끼 가면으로 아방가르드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 S/S 컬렉션으로 중세시대의 왕족을 느끼게 하는 왕관장식과 패딩 소재의 케이프와 띠를 통해 장식성을 부각시켰다(그림 74). <그림 75>은 2016년 F/W 컬렉션 작품으로 골드와 블랙 색상의 상의와 여성적인 실루엣을 확장시킨 스커트, 나뭇가지를 연상시키는 헤어장식은 예술작품처럼 느껴지며, 동화 속에 나타나는 여왕 같은 이미지를 통해 장식적인 이미지를 잘 표현하였다(그림 76).



<그림 69> Undercover
2015 F/W Collection

(출처: <http://runway.vogue.co.kr/2015/03/09/ready-to-wear-2015-fw-undercover/#0:1>,
검색일자: 2016. 8. 12)



<그림 70> Undercover
2014 S/S Collection

(출처: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1&collection=37303&image=5265876#.WFao1WLSUk,
검색일자: 2016. 8. 1)



<그림 71> Undercover
2013 F/W Collection I

(출처: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41&collection=35316&image=5011005#.WFan71WLSUk, 검색일자:
2016. 7. 24)



<그림 72> Undercover
2016 F/W Collection II

(출처: <http://runway.vogue.co.kr/2016/03/05/ready-to-wear-2016-fall-undercover-collection/#0:19>, 검색일자: 2016. 7. 22)



<그림 73> Undercover
2015 S/S Collection

(출처:<http://runway.vogue.co.kr/2014/09/29/ready-to-wear-2015-ss-undercover/#0:35>,
검색일자: 2016. 7. 1)



<그림 74> Undercover
2013 F/W Collection II

(출처: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4&collection=35316&image=5010978#.WFanv1WLSUk,
검색일자: 2016. 6. 15)



<그림 75> Undercover
2014 F/W Collection IV

(출처: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96&collection=38806&image=5488962#.WFapY1WLSUk,
검색일자: 2016. 6. 24)



<그림 76> Undercover
2016 F/W Collection III

(출처: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33&collection=44181&image=6377396#.WFAQPIWLSUk,
검색일자: 2016. 7. 2)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 디자이너에 나타난 표현 요소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 디자이너에 따른 표현요소

디자이너	작 품	특 징	표현요소
다카다 겐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결한 디자인과 장식성을 결합하여 미래 지향적 이미지 표현 ■ 색채의 대비와 확대된 실루엣을 통해 초현실성 표현 	<p>미래성</p> <p>초현실성</p>
준야 와타나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통해 조형적인 형태로 디자인 표현 ■ 헤어장식과 패션의 디테일을 통해 초현실적인 이미지 표현 	<p>미래성</p> <p>초현실성</p>
치토세 아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의 새로운 결합으로 인해 해체성을 표현 ■ 다양한 소재의 결합과 디자인을 통해 실험적인 미래성을 표현 	<p>해체성</p> <p>미래성</p>
준 타카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체와 결합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표현하여 해체성을 표현 ■ 다양한 소재와 화려한 헤어장식을 통해 장식성을 표현 	<p>해체성</p> <p>장식성</p>

IV. 결론

아방가르드 패션은 외관의 아름다움과 미적 요소에만 의지한 창조보다는 과거로부터의 단절, 부정이라는 개념으로 기성개념에 좌우되지 않은 독자적인 세계라는 시각에서 파악되고 있으며, 새로운 인간성을 구현하고자 한 취지의 이러한 시도들은 예술의 각 분야에서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아방가르드 패션은 현시대에서 보다 앞서가는 형태를 일컬으며, 자율적이고 주관적인 미적 특성과 패션 이미지의 분리와 재합성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고정관념에 반기를 든 창조성과 진보성으로 정의 내려진다고 할 수 있다.

본연구의 목적은 일본을 대표하는 아방가르드 패션 디자이너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인간의 근원적 의지가 실현된 아방가르드 패션의 표현요소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예술과 미학의 분야에서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히 논의되어 온 아방가르드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예술분야에서의 아방가르드 특징을 고찰하고, 패션에 있어서 아방가르드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였다.

일본의 대표적인 아방가르드 패션 디자이너 다카다 겐조, 준야 와타나베, 치토세 아베, 준 타카하시의 컬렉션 작품을 미적특성 미래성, 해체성, 장식성, 초현실성으로 분류하여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카다 겐조는 간결한 디자인과 헤어 장식을 결합하여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이질적인 소재와 컬러의 다양함, 오브제의 사용으로 인해 SF영화 속 주인공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적 특성을 갖는다. 또한 색채의 대비와 확대된 실루엣을 통해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둘째, 준야 와타나베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통해 조형적인 형태로 디자인하여 표현하였고, 헤어장식과 몸의 형태를 과장시키거나 왜곡시켜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어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는 특성을 갖는다.

셋째, 치토세 아베는 기존의 것을 재사용, 혼합, 인용하거나 이질적인 소재의 혼합, 과대한 실루엣이나 형태, 구조를 변형하여 나타냈다. 기괴적이고 난해하지만 새로운 감각으로 현대적 감성에 맞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는 특성을 갖는다.

넷째, 준 타카하시는 다양한 소재의 결합과 디자인의 해체와 결합을 통해 해체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실루엣을 과장시키거나 왜곡시키며 이질적인 소재의 믹스매치를 통해 디자인하였고, 기괴적이고 독특한 헤어 장식과 모티브를 통해서 창의적인 디자인적 특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선두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 디자이너들의 현대 아방가르드적 패션의 분석을 통해 일본 디자이너들의 패션에는 자국의 전통정서와 문화, 미의식, 예술 흐름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미래 패션에 대한 영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본 아방가르드패션 연구를 통해 미래의 패션에 대한 해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일본의 문화와 정서를 깊이 이해하고 패션을 선도하는 아방가르드패션의 창의적 발상이 융합된다면 미래 패션에 대한 제재(題材)을 선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 금윤진(2005).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포스트모던적 아방가르드 성향에 관한 연구: 해체주의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고은(2014). 하위문화로서 가루 뷰티스타일 특성.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김미성·배수정(2003). 이세이 미야케의 패션철학을 통해 나타난 디자인
특징에 관한 연구. 복식, 53(6). pp. 161-173.
- 김민자(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복식, 37(1), pp. 103-118.
- 김민자·노정심(1994).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김옥동(1994).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 서울: 민음사.
- 김원갑(1991). 현대건축디자인에 미친 아방가르드 이론과 과학패러다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하·권수애·김지영(2010). 현대 패션에 나타난 기모노 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6(2), pp.129-144
- 김혜경(2007). 패션트렌드와 이미지. 서울: 교문사.
- 김화숙(2008). 기모노에 내재된 일본의 전통적 미의식에 관한 고찰. 단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정심(1994).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주희(2009). 2000년대 한국·일본 청년 하위문화 스타일 비교. 서울대학

-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영(2000). 모리 하나에 패션디자인의 조형미 연구: 199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영자·유효순(1989). 서양의복식문화. 서울: 경춘사.
- 변가영(2014). 현대복식에서 로맨틱 아방가르드 디자인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새런 킨셀라(2000). 1990년대 일본의 하위문화 연구: 오타쿠와 아마추어 망가 운동. 만화애니메이션연구, 4, pp.312-336
- 엄소희(1993). PunkFashion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소희·김문숙a(2000). 현대복식에 표현된 아방가르드의 유형별 특성 연구. 복식문화, 8(2), pp. 315-333.
- 엄소희·김문숙b(2000). 현대복식의 패러다임: 아방가르드의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 경춘사.
- 월간미술(2007).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월간미술.
- 유은옥(2003). 2000년대 초반 로맨틱 스타일의 장식적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상인·박전열·이정·이원곤·김양주·이계황·이애숙·김용의·심경호·배현미·염혜정·박규태·황달기·김석근·김정례·손종수(2000). 일본을 강하게 만든 문화코드 16. 대전: 나무와 숲.
- 윤혜성(2013). 아방가르드 표현요소를 적용한 패션창작센터 실내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호병(1992). 후기구조주의. 경기: 고려원.
- 이경아(1997). 복식의 자연주의 양식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은(2007). 메이크업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에 관한 연구: 2001

년~2005년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미연(2009). 현대 아방가르드의 패러다임에 따른 NOW 아방가르드 패션 고찰 : 2005년 이후의 여성복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7(1), pp. 40-54.

이민선(2013). 패션디자이너의 창의성 발현요인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봉덕·양숙희(2001). 파코 라반 작품에 표현된 다원주의. 복식문화연구, 9(1), pp. 141-153.

이수현(2010). 로맨틱 아방가르드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영국 패션디자이너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용섭·조윤진·김선아(2015). 로맨틱 아방가르드 특성을 응용한 신발 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5(4), pp. 121-138.

이정후·양숙희(1997). 현대 일본복식에 나타난 선미학적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7), pp. 1184-1195.

이지원(1999). 해체주의적 표현기법으로 형상화시킨 니트웨어 디자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효진·김주연(2005). Alexander McQueen의 패션작품에 나타난 하이브리드(Hybrid) 경향 분석, 복식문화연구, 13(2), pp.300-313.

임은혁(2007).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의 미학: 몸의 평면화를 중심으로, 복식, 57(1), pp.50-65

임은혁(2011).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에 표현된 서구 전통복식의 혼성모방, 복식, 19(5), pp.970-980.

장애란(1998). 핑크록이 반영된 Vivienne Westwood 작품의 기호적 해석. 복식, 39(1), pp. 197-215.

전은비(2010). 레이 카와쿠보이 패션과 공간에 나타난 사고와 디자인 특

- 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연자(1993). 다카다 겐조의 작품에 관한 연구. 복식, 21. pp. 207-218.
- 정재연(2006). 패션디자이너의 아방가르드 스타일에 관한 조형적 특성. 한
국기초조형학회지, 7(1), pp. 409-419.
- 조규화·이희승(2004). 패션미학. 서울: 수학사.
- 조은주(2010). 벨기에 패션의 네오아방가르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채혜숙(2010). 프랑스, 영국, 일본의 아방가르드 패션 비교 연구. 경희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혜숙·유영선(2009). 아방가르드 예술에 의한 영국패션 표현 연구: 레나
토 포지올리의 예술론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1(1), pp.
397-410.
- 최애주(2010). 해체의 전위로서 아방가르드(Avant-Garde) 미술연구. 강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영옥(2007). 하나에 모리 의상에 나타난 미적 특성. 한국의류산업학회
지, 9(6), pp. 613-625.
- 최은진(2003). 장 폴 고티에(Jean-Paul Gaultier)의 작품이 현대 패션에
준 영향에 관한 연구: 아방가르드와 표현주의 개념을 중심
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연(2009). 요지 야마모토 의상에 표현된 미의식에 대한 연구. 한국디
자인문화학회지, 15(3), pp. 455-465.
- 팽문영(2009). 영국과 일본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페데리코 폴레티(2010).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세계 아방가르드. 서울:
마로니에북스.
- 하승연·이연희(2012). 이세이 미야케의 패션에 표현된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 복식, 62(3), pp. 57-72.

한경미(2004). 일본 패션 디자이너의 의상에서 나타난 Zen-style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나영·산혜성·최지희(2004). 아시아 전통복식. 서울: 교문사.

Richard Martin & Harold Koda(1993). *Infra Apparel*. NewYork: The MetropolitanMuseum of Art

기 타 자 료

Dkoptic. <http://dkoptic.com>

ELLE. <http://www.elle.co.kr>

Fashionbiz, <http://m.fashionbiz.co.kr>

Firstview, <http://firstview.com>

Koreafashion. <http://koreafashion.org>

Michiko London, <http://www.michikokoshino.co.jp>

N. HOOLYWOOD, <http://n-hoolywood.tumblr.com>

Navercast. <http://navercast.naver.com>

Sacai, <http://www.sacai.jp>

Undercoverism. <http://www.undercoverism.com>

VOGUE KOREA. <http://www.vogue.co.kr>

Week&+, <http://news.joins.com>

Wikipedia. <https://ja.wikipedia.org>

ABSTRACT

Appear in Japanese fashion designer works
Expression elements of avant-garde

LI, JIE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the modern fashion gradually becomes multi-layered by the dismantling of the existing norms and the pluralistic thinking, the avant-garde which has been promoting the social surroundings has been variously displayed not only in the theme but also in fashion and culture. As a result, avant - garde fashion is frequently attempted by some designers in modern fashion, and the influence of avant - garde fashion on the public is also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future fashion in avant - garde fashion through case analysis of representative avant - garde fashion designers in Japan. Through this, it is meaningful to try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reative modern fashion design.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based on literature survey and case

study. The literature survey wa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monographs.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he arts, fashion books, various fashion and internet photo materials since 2010.

Based 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I looked at the background of Japanese avant-garde fashion an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avant-garde fashion design in terms of silhouette, color, and material. , Yoshi Yamamoto, Kano Takada, Watanabe Junya, Michiko Koshino, Daisuke Obana, Chitose Abe, and Jun Takahashi were investigated concretely.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classifying the collection works of Japanese representative avantgarde designer Kenzo Takada, Junya Watanabe, Chitose Abe, and Zen Takahashi as aesthetic characteristics, futurism, demolition, ornamentality, and super reality.

First, KANJO Takada expresses futuristic image by combining simple design with hair ornaments. It has creative design characteristics through design that reminds the main character in SF movie because of heterogeneous material and color variety, use of object. In addition, the contrast of colors and the expanded silhouette express surreal images.

Secondly, Junya Watanabe has a characteristic of designing and expressing in formative form through a futuristic image and creating a new design by exaggerating or distorting the shape of hair or body and creating a surreal image.

Third, Chitose Abe appeared to reuse, mix, cite or mix different materials, excessive silhouettes, shapes and structures of existing ones. It has a characteristic of creating a new design by giving a

new meaning and value to modern sensibility with a new sense, which is bizarre and intricate.

Fourth, Jun Takahashi expressed disassembly through the combination of various materials and disassembly of design. It is also designed with exquisite mixes of motifs that exaggerate or distort the silhouette and have creative design features through bizarre and unique hairdressing and motifs.

In this study, we will present the direction of creative modern fashion design based on the works and expressive elements of fashion designers in avant-garde Japan. Furthermore, if we deeply understand Japanese culture and emotion, and the creative ideas of avant - garde fashion leading fashion are fused, we will be able to lead the sanctions on the future fashion.